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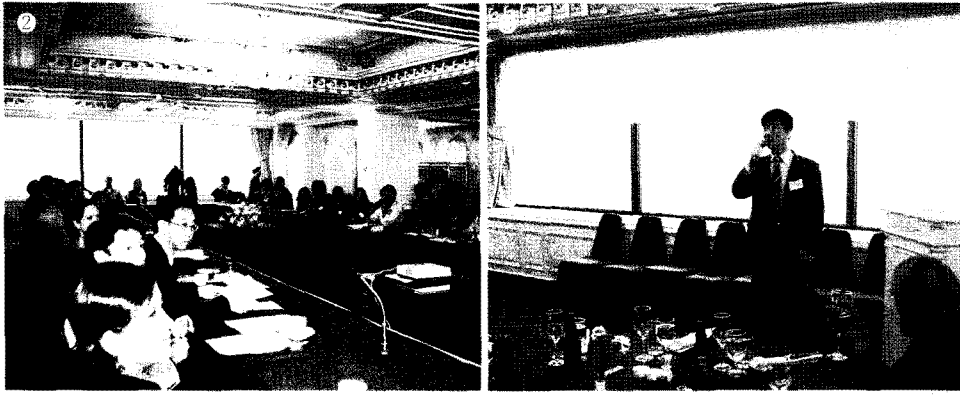


2009 TSRU 연례회의의 서울서 개최

글과 사진_박연숙(본지기자)

결핵관리정보조사기구의 고유 연구전략을 개발하고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한 세분화된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각종 결핵연구의 기획, 실시 및 분석 자문을 위한 TSRU(Tuberculosis Surveillance Research Unit ; 국제결핵정보조사기구) 연례회의가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주최로 4월 15일~17까지 서울 소피텔엠버서더호텔에서 개최됐다.

TSRU는 1966년 결핵의 역학적 연구와 유병률이 낮은 국가에 대한 결핵관리사업의 효과 및



- ① 4월 15일 회의 첫날 공식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 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- ②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는 참가자들.
- ③ 회의 후 6시부터 시작된 만찬에서 김희진 결핵연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.

효율성 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, 결핵의 역학적 연구와 유병률이 낮은 국가에 대한 결핵사업의 효과, 효율성을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각 회원국들의 관련 프로젝트를 매년 연례회의를 통해 토의하고 있다.

TSRU 연례회는 1997년 이후 1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. 회의기간인 4월 15일부터 3일 동안 결핵의 연구 양상, 약제내성 등 다양한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는데, 특히 결핵연구원에서는 김희진 결핵연구위원장, 김창기 진단검사의학부장, 박영길 분자생물검사과장, 류성원 계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.

이번 회의에는 WHO(세계보건기구)의 Dr. Ikushi Onozaki, IUATLD(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)의 Dr. Hans Rieder를 비롯해 KNCV(네덜란드 왕립 결핵연구소)의 Dr. Marieke Van Der Werf 등 총 16개국에서 41명이 참석하였다.

TSRU는 WHO, IUATLD, KNCV 외에 핀란드, 중국, 독일, 일본, 스위스, 탄자니아, 베트남, 말라위,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ITSC(국제결핵감시센터)에서 회원국들의 투베르쿨린 반응조사 실행계획과 분석의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. †